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9호 [루게 제26103호] 주제 107 (2018)년 8월 17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육군대장 김수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동지, 오일정동지, 김용수동지, 국무위원회 부장 김창선동지, 국무위원회 국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지에서 건설지휘부의 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총배치계획안을 보시면서 공사진행정형을 보고받으시고 호텔과 자취숙소, 봉사시설들을 비롯한 건설장전반을 돌아보시며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물들이 개별화되고 낮낮이에서도 차이가 얼마 없다고 하시면서 층수에서 낮낮이차이를 주고 30층, 25층짜리 여관들과 봉사건물들을 더 조직하며 건물들사이의 편결을 더 조화롭고 특색있게 함으로써 전반적거리형성을 예술적으로 세련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원림복화를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일부 구역에는 양묘장에 들어온 것처럼 같은 종류의 나무들을 일률적으로 심었는데 바다를 끼고있는 해안의 주변 생태환경에 어울리게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배합하는 원칙에서 원림설계를 잘하고 그에 따라 조성할데 대하여 이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장정치부에서 건설자들에 대한 인원관리도 잘하고 공사장의 질서유지, 로동안전



과시될 것이며 우리 인민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선물이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장정치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실적을 논하기 전에 이 거창한 창조대전을 통하여 군인들과 건설자들을 애국가, 송신, 사상의 강자들로 키워야 한다고, 정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 건설자들을 위훈과 혁신으로 불러일으키도록 하며 친년백일, 만년보종의 구호를 높이 들고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우리 시대의 새로운 재물을 창조하게 하여야 한다고, 인민군대가 이러한 투쟁에서도 선도적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두다 검인불발의 루지와 배심을 안고 세상에 돌도 없는 해양공원을 건설하여 다음해 10월 10일을 맞으며 인민들에게 선물하자고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한적하고 이름뿐이었던 명사십리가 곧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기쁨과 평안의 심리해안으로 전면될것이라고, 앞으로는 명사십리가 인파십리가 될것 같다고 환히 웃으시며 당의 은성수에 희열에 넘쳐 우리 시대의 새로운 문명을 마음껏 누릴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모습을 그려보시였다.

우리 인민들이 세상 가장 존엄하고 행복한 인민으로 떠받드시며 삼복철의 특열강행군을 즐기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구상과 의도를 심장깊이 포아박은 전체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당이 펼친 용대한 설계도따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함으로써 적대세력들의 비렬한 책동을 단호히 쳐잡고 나라의 전면적부흥을 이룩해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약동하는 기상을 만만히 떨쳐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시정치보도반

대책, 사고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 환경의 사고도 없게 하며 공명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과 지휘성원들이 건설자들의 후방사업과 공급사업에 언제나 관심을 돌리며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난방, 상하수도부문을 비롯하여 하부시설방공사를 질적으로 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전기, 난방, 급배수부분 시공을 잘하여 건설에서 표준, 기준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설계와 감독기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압시험, 강도시험, 안전성검사와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시공

지도와 질감독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특히 임의의 장소에서도 상수도의 압력을 5기압 보장하는것을 정책적으로 틀어쥐고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바다물을 끌어들이 인공못들도 만들어놓았는데 주변환경과 어울리고 자연미가 나게 못들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못물에 낚시터를 꾸리고 봉사시설들도 갖추어주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력사장의 해수욕구획물에 구급의료시설들을 비롯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다 구비해줄데 대한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나라의 정치종교 아름다운 해변가들에 문화휴식터를 훌륭히 꾸려 인민들이 마음껏 향유하게 하려는것은 당에서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사업이며 자신께서

제일 하고싶었던 사업중의 하나였는데 이제는 눈앞에 현실로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 당의 용대한 구상과 당의 명령,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천만군민의 결집발발의 무지가 있기에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고있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과 같은 방대한 창조대전은 강도적인 제재봉쇄로 우리 인민을 질식시켜보려는 적대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이고 당의 권위를 옹위하기 위한 결사전이며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고 꽃피우기 위한 보람진 투쟁이라고 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모든것이 어렵고 간고한 시기 이저럼 오란한 대구모공사가 세계적인명을 압도하며 결속되면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만천하에 다시한번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기쁨과 평안의 심리해안으로 전면될것이라고, 앞으로는 명사십리가 인파십리가 될것 같다고 환히 웃으시며 당의 은성수에 희열에 넘쳐 우리 시대의 새로운 문명을 마음껏 누릴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모습을 그려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안남도 양덕군안의 온천지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안남도 양덕군안의 온천지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육군대장 김수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동지, 오일성동지, 김용수동지, 국무위원회 부장 김창선동지, 국무위원회 국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날부럽지 않은 풍요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사색과 로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풍부한 온천들을 다양하게 개발리용하기 위한 문제를 두고 깊이 마음쓰시며 온천들에 대한 자료를 거듭 연구하시던 끝에 양덕군의 온천지구에 병치로도 하고 관광휴식도 할수 있는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본보기 온천관광문화지구를 꾸리실 구상을 안으시고 깊은 밤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



지어놓고 남새농사를 하고 메기양어도 하고있는데 온천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시였다.

그리고 온천지구에 꾸려놓은 료양소, 온천치로장들이 위생문화적으로 락후하다고, 정성군에 있는 온포휴양소를 돌아볼 때에도 지적하였지만 온천수조들이 최근에 잘 꾸려진 양어장들의 물고기수조보다도 못하다고, 지금 전반적으로 온천장들의 내부시설이 낡고 환경이 좋지 못하는데 이번에 본보기로 하나 잘 꾸리고 전국각지에 있는 온천장들도 다 일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늘보듯 산밭들과 험한 험길을 헤치시며

로동당 양덕군위원회 위원장 강일경동지를 비롯한 군당일군들을 부르시여 군안의 온천지구에 현재 꾸려져있는 료양소들의 운영실태와 온천리용성형을 료해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곳곳에는 주변결치가 뛰어나고 사람들의 건강과 병치료에 효과가 대단히 좋은 온천지원들이 적지 않지만 류양 및 료양시설단계 위생문화적으로 온천하게 꾸려진 종합적인 본보기

지가 없다고 하시면서 머릿물만

여러모로 따져본 결과 그중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된 양덕군의 온천지구를 현지지도하고 멋있게 하나 지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양덕군은 우리 나라 동서부철도의 중간지점으로 4개 도에 경계를 두고 수많은 군과 리들을 이웃하고있고 평양-원산고속도로도 가까이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여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양덕군안의 온천들은 류황성분이 많고

라몬이 극히 적은 고온천으로서 용출량이 대단히 많고 약리적작용과 치료효능이 높을뿐아니라 이번에 온천수성분을 분석해본데 의하면 오염성평가지표인 암모니움과 아질산, 질산이온들과 병원성미생물이 전혀 없어 오염되지 않은 온천으로 평가되였다고 하시면서 이 지구에 종합적인 료양 및 문화휴양지를 훌륭하게 개발하려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금 이렇게 치료조건이 좋은 온천지구에 여러 무력, 특수단위들에서 저마끔 온천을

양덕군 온정리일대의 온천광물들을 돌아보시면서 온천의 용출량과 주변환경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역수로 쏟아지는 소낙비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고 온도가 80℃나 되는 뜨거운 물이 더운 김을 피워올리며 팽팡 솟구치는 용출구를 보시면서 그 무슨 보석이라도 찾으신듯, 쌓이신 피로가 다 가셔지신듯 환하게 웃으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3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안남도 양덕군안의 온천지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2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산이 높고 숲이 무성하여 공기 좋고 풍치수려한 양덕군은 온천휴양소, 료양소들을 꾸리기에 적중하다고 하시면서 종합리판을 건설할 위치를 몸소 잡아주시고 이 지구에 종합리판을 덩치가 크게 앉히고 주변에는 자취속소들도 잘 꾸리며 각종 현대적인 종합봉사시설들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야외온천도 할수 있게 실내욕탕뿐 아니라 야외온천도 꾸리고 개별온탕, 대중온탕, 치료온탕 등 각종 온천휴양소를 할수 있게 할때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온천 지구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료양소도 건설하고 지금 이 지구에서 료양소를 운영하는 단위들이 호동별로 료용하도록 하며 개별적인 치료대상들이

료양을 할수 있는 호동들도 꾸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휴양소와 료양소를 현대적으로 건설하는것과 함께 온천지구를 개편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지구에 있는 살림집들을 소중파 단층의 유기적결합으로 산간지대의 온천휴양지마을로 특색있게 잘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 유명한 온천지가 많은데 비하여 온천문화가 발달되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나라의 모든 온천지들을 점차적으로 다 개발하여야 한다고, 먼저 양덕군 온천지구개발사업을 전국의 본보기로, 국가를 대표할수 있는 급으로 높은 수준에서 하여 기준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그러자면 설계부터 세계

적인 추세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똑똑히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온천지구를 주변의 국토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선행하여 밀고나가며 산림조성사업에도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온천지구개발사업을 무슨 일이든 조건과 부담이 없도록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에 맡기지 말고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문명의 개척자인 인민군대가 맡아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인민군대가 맡아 하려면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빠르게 진척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건설력과 자재보장에 이르기까지 일

체 모든것을 전적으로 맡아 래년도 10월 10일까지 온천지구를 최상급으로 훌륭하게 전변시켜 국가에 기증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앞으로 온천을 개발리용할 때 온천수의 성분과 효능을 정확히 분석하도록 하며 영업과 관련한 법적규정도 제정하여 나라의 귀중한 천연자원을 일부 단위들에서만 특권으로 리용할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통제속에 전체 인민들이, 후대들이 향유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해방 후 셋째 이곳을 찾으시어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첫 휴양소를 꾸려주시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양덕군안의 온천지구를 만년대대로 훌륭하게 변모시키도록 참다운 인민의 공화국을 일떠세워

주시고 동서고금에 류비없는 인민적시책들부터 실시하여주시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세세년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에서 인민들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구상해 온 이 사업을 혁명의 주력군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격대인 인민군대에 맡길것을 결심하고보니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자기의 투쟁본래, 투쟁기질로 새로운 기적과 대비약적혁신을 창조함으로써 당의 기대를 꼭 보답해야 한다고 믿음어린 말씀을 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은 양덕군의 산간마을 온정리일대에 료당시대와 또 하나의 새로운 문명을 펼쳐게 될것이다.

본사정치정보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발 앙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 각하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귀국인민이 자유와 존엄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바친 해방전에 즈음하여 팔레스티나 국가와 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각하를 통하여 귀국정부와 친선적인 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두 인민들사이의 역사적인 친선관계와 당신들이 강점을 끝장내고 동부두드스름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언제나 확고한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주셨던것을 금지로 간추립니다. 우리는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와 아울러 귀국과 귀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하면서 각하께 다시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
팔레스티나 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흐무드 아바스

2018년 8월 15일

라말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경축 로므니아전국준비위원회가 7일에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족사회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인 주세사 상인구 로므니아전국위원회 위원장 바셀레 오를레이누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

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결성위원들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가 10일 단마르크의 페레하르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단마

르크의 공산당 지도부성원 쉐닝 야팜센,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프스텐펠이 선출되었다. * * * 준비위원회는 공화국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전역을 들끓게 한 사상전의 집중포화

각 도당 위원회 일군들과 모범적인 강연강사들
삼지연군건설장에서 연합집중강연선전활동 진행

각 도당위원회의 일군들과 모범강연 강사들 무어든 연합집중강연선전대가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훌륭히 꾸리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고있는 현장에 나가 대중의 정신력을 호랑발사키는 화선정적지시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불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목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이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을 모든 지휘성원들과 동지대원들이 뼈와 살로 새기도록 하기 위한 실감있는 강연자료와 전투적인 노래, 시들도 준비하였다. 그리고 공화국 창건 70돐을 맞으

며 로력적신물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둔 성과들을 가지고 선동선전선, 해설담화차로들도 단결하였다. 이렇듯 일군들은 선전선동수단을 동원하여 삼지연군을 전국의 본보기로, 세상에 들도 없는 산간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에 지휘성원들과 동지대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빈틈없이 갖추었다.

삼지연군주리기에 동원된 지휘성원들과 동지대원들에게 보내는 지원물자들까지 준비한 연합집중강연선전대는 즉시 현지에 도착하여 대상건설장들을 타고있었다. 각 도당위원회의 일군들과 모범강연 강사들은 216사단의 922건설대, 618건설대, 백두산영웅정년대, 성, 중앙기관단, 철길건설대에 속한 자기 단위의 현대, 대대들과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나가 일제히 사상전의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618건설대원 황해북도현대의 앞장에서 나가는 장풍군대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면서 앞선 단위

들을 따라앞서기 위한 맹렬한 투쟁적열을 벌리도록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피였다. 강령기등으로 조국을 받드는 나라의 맡아들리게 혁명의 성지건설에서도 전국의 일장에 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와 시조 《황철과 조국》, 노래 《면역하여라 료당시대》, 《애함의 제일이야》 등을 들은 군중들이 지휘성원들은 동지대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정당한 마음 한테 모으는 기동, 대공적혁신운동의 힘있는 척후병이 될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동지대원들은 기적창조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려 맑은 사상공세를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끝낼 불같은 맹세를 다지며 하루공사실적을 1.7배로 높였다. 원창에 진행되는 혁신자축도모임과 함께 일하면서 들떠주는 고향소식, 지원물자들을 넘겨주며 진행되는 절실한 당부도 동지대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한층 고조시켰다.

강연도당위원회의 일군들과 모범강연 강사들도 강원도현대의 작업장마다 나가 비약의 불화불을 일으키는 거센 밑불이 되어 화선정적지시사업의 위력을 높이 떨치였다. 이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강연도양보장, 송도전통합시포공장, 현산영예군인가방공장에 대한

삼복철현지지도는 도입군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자력경쟁의 신명을 때려쳐주고 온 나라에 기적창조의 새로운 불씨를 지펴준 력사의 장기이라는 내용으로 생동하면서도 구수하고 설득력있는 해설담화를 진행함으로써 동지대원들모두의 마음을 뒀어잡았다.

자강도당 위원회 일군들과 모범강연 강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조국강산을 진감시키며 현이 일어난 눈부신 기적들에 대한 소식을 강연선전에 민감하게 반영하여 신평을 높였다. 그리고 작업대상별로 순회하며 대상과 정황에 맞게 강연선전활동을 능동적으로 벌려 동지대원들모두가 강연선전의 창조적 불같은 맹세를 다지며 하루공사실적을 1.7배로 높였다. 원창에 진행되는 혁신자축도모임과 함께 일하면서 들떠주는 고향소식, 지원물자들을 넘겨주며 진행되는 절실한 당부도 동지대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한층 고조시켰다. 강원도당위원회의 일군들과 모범강연 강사들도 강원도현대의 작업장마다 나가 비약의 불화불을 일으키는 거센 밑불이 되어 화선정적지시사업의 위력을 높이 떨치였다. 이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강연도양보장, 송도전통합시포공장, 현산영예군인가방공장에 대한

현지정보단

